

아동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상담자의 내러티브 연구

송정애*, 박유범**

송실대학교 박사수료*, 명지대학교 강사**

A Narrative Study of a Counselor's Experience of Violence from Father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Jeong-Aie Song*, Yoo-Beum Park**

Ph.D. Graduate,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Myon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정 폭력 경험이 한 상담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이 상담자의 삶의 연구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다른 내담자에게 긍정적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접과 관찰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 폭력이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극복'을 통해 '폭력'의 부정적인 삶을 '상담사'가 되는 긍정적인 삶으로 재구성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한 사람의 생애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시각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제어 가정폭력, 가족관계, 자아정체성, 극복, 삶의 재구성, 내러티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from father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one counselor's identity and the outcomes in their life.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how studying the life of this counselor can provide positive effects to other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subjects, adopt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based on counseling content. Th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 that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haping an individual's identity and that through 'overcoming,' one can reconstruct a negative life of 'violence' into a positive life as a 'counselor.' Furthermore, these experience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individual to perceive themselves more objectively and to find meaning in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throughout their life journey.

Key Words Domestic Violence, Family Relationships, Self-Identity, Overcoming, Life Reconstruction, Narrative

Received 22 Jun 2023, Revised 14 Jul 2023

Accepted 18 Jul 2023

Corresponding Author: Yoo-Beum Park
(Myonji University)

Email: ybpark09@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와 사회 공동체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인간관계 형성, 자아 개념 등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이론이 있다. ‘외상이론(Trauma Theory)’, ‘자기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 ‘연결성 이론(Attachment Theory)’, ‘정서조절이론(Emotion Regulation Theory)’,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등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개입방법을 모색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원과 치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폭력 경험자인 상담자 자신도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상담자의 역할과 전문성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한 상담자의 내러티브를 알아보고, 그가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연구의 문제를 몇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 둘째, 폭력 경험을 한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였는가? 셋째, 폭력 경험으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넷째, 폭력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다섯째,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여섯째, 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재구성하였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한 상담자의 부정적인 요인이, 또 다른 피해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이해와 극복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상담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2. 문헌 고찰

2.1 가정 폭력

가정 폭력 연구의 범위는 주로 가정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폭력에 대한 현상도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도식화하여 나눌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본다.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 년 동안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475건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폭력피해 1,084 건 중 여성 피해는 1,030 건으로 여성 피해가 94.6%였다. 가정 폭력은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폭력에 비해 많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폭력의 강도가 크고 빈도수가 많아서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폭력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전문가들이 후유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정은, 2018)[3]. 특히 가정 폭력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노경임, 2012)[5].

2.2 가족 관계에서 폭력

가족 관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이기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은 다른 폭력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서, 가정 폭력 가해자의 가족 분포는 전, 현 배우자가 58.3%, 부모(친계포함) 19.94%, 형제자매 6.1%, 시부모 3.6%, 자식(아들/딸) 3.2%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폭언, 멸시, 욕설 같은 정서적 폭력이 67.6%이며, 손발로 구타를 하거나 기물 흉기 위협 등 신상에 관련된 폭력 53.7%, 경제 활동에 관련된 폭력 22.7%, 성추행, 강간, 성적의심 등 같은 성적 폭력은 20.6%였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외상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3 자아 정체성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인식하며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 사람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때마다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욕구 충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가장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할 가족에게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삶의 역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과 후유증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하면 피해자의 병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그들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박지현·최지영, 2016)[4].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결과가 피해자들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해하거나 너무 작은 틀에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이를 인간의 축소화로 설명하고 있다(김정명, 2021)[1].

특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 즉 경험에 대한 해석이다(김병득, 2012)[2]. 가정폭력 경험자 또한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설정하며, 자신의 욕구와 정체성을 인식 한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개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의식을 찾아가게 되고, 또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4 극복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삶의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은 삶의 여러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구성된다. 각 개인의 독특한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가정 폭력의 외상 경험이 오히려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발달하여 이 또한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페인(Payne, 2005)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러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련한 탐구의 결과는 피해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폭력 피해자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서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15].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개념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개인의 내러티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Yarhouse, 2008)[16].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아 인식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더 좋은 삶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피해자들은 그 상황 속에 갇혀서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진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폭력 상황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피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폭력 피해로 인한 아픔과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피해자들의 삶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아폰테(Aponte, H, J.)는 가난하거나 억압 받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일은 그들이 살아온 삶과 가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서진선, 2017)[5].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탐구는 원치 않게 지속적으로 겪게 된 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또 피해자 안에 형성된 자아상을 이해하고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잘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2.5 삶의 재구성

폭력은 인간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신진옥(2004)은 포비츠(Popitz)의 이론을 인용하며, 폭력의 의도성, 육체성, 권력이라는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2014, 배영미)[13]. 그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력행위가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힘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무력해 질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2014, 배영미). 호네프(Honneth, 2009)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 삶의 다양한 측면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행동의 지향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14].

따라서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환경 속에서 개인이 폭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해 왔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상과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가?(2014, 배영미)[13].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살아온 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해하여 지나는 시간을 되돌리거나 일어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는, 인간 삶의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 사건과 경험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오은영, 2023)[6]. 내러티브를 ‘순서를 가진 이야기’라고 볼 때, 내러티브 안에 연대기적 시간,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 이야기 주제의 의미를 가진다(윤건수·김순희, 2013)[7].

내러티브는 화자(연구 참여자)의 경험(과거의 사건과 행위)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여 사건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내러티브는 개인 경험의 주요 맥락이 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장소와 때 그리고 상호 관계에서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2014, 배영미)[13]. 개인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으로써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김이병도·박현민·서우승·이창배, 2019)[8].

내러티브는 일상생활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위한 탐구 방법인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때로는 폭력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나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대상화되거나 가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저술하는 저자 또는 화자로서 즉, 주인공으로 위치 지운다. 그리고 연구자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가 구성되는 삼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2014, 배영미)[13].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하거나 ‘주변화’하지 않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이점이 있다(주재홍·김영천, 2012)[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내러티브는 생애 주기적으로 경험한 폭력의 의미와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개인의 내러티브는 그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맥락 안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승주·정병수, 2015)[9]. 경험된 폭력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폭력 경험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내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첫째 경험된 폭력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둘째 폭력 경험 과정에서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이러한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삶의 재구성은 무엇인가? 이다.

3.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55세 여성, 기혼, 학력은 대졸, 직업은 전에는 미용사, 현재는 상담사이다. 1명의 참여자를 4차례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은 상담내용의 텍스트

자료를 1차 자료로 하고 연구자가 상담한 다수의 가정 폭력 상담사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서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등 다중적으로 폭력을 경험해 왔다. 어린시절은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 결혼해서는 알콜중독자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헤어나오기 힘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는 삶의 의지를 놓고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가중되었다. 참여자는 가정폭력 경험자로서 상담과정을 통하여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극복이 되었고, 삶의 재구성이 가능케 되었는지를 상담을 통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상기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주요 사건, 그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하위 범주들을 추출하고 상위 범주 내에서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생애 주기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의미의 내러티브를 연구자가 직접 이해하고, 정체성과 관련된 범주와 테마가 출현함에 따라 올바른 방향 제시의 방법들을 도출하였다(2014, 배영미)[13].

4. 연구 결과

4.1 아동 청소년기 폭력 경험과 정체성 형성

앤더슨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외상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Anderson, 2012). 생애 주기적으로 경험된 폭력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2014, 배영미)[13].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외모도 뛰어나고, 인기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폭력, 시어머니의 학대, 타인의 무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참여자는 폭력의 상황에서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타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한 것이다(전신현, 2019)[10]. 지속적으로 반복된 폭력 경험은 연구 참여자가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

리고 외부로부터 존중 받고 싶은 기대 또한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긍정적인 태도와 반응은 개인의 자의식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홍세은·정지수, 2019)[12]. 그러나 동시에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였을 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4.2 폭력에 직면한 객관적 자아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오랫동안 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오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늘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아버지로의 폭력에도, 좋은 성적을 내면 아버지께서 술을 덜 먹을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칼로 위협을 해도, 오직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언어폭력에도 꺾듯이 참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연구 참여자는 폭력 앞에 직면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객관화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비록 유아기부터 폭력을 경험해 오면서 그의 자아 정체성은 크게 혼란과 걱정을 거쳐 크게 훼손된 상태로 오늘날 까지 살아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실현을 위한 선택을 이해했다(2014, 배영미)”.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한다.

4.3 삶의 질 향상과 재구성

폭력이 ‘다른 사람의 자아의식을 손상하는 외적 강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아실현이 방해받게 된다고 했다(문성훈, 2010).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센(sen)은 ‘혹독한 발견이 이루어질 때조차 중요한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이

상환·김지현 역, 2009).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은 자아 정체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며, 자신에게 편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을 다짐했다.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다중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온 집안을 썩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내인 연구 참여자와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칼로 위협하며 온갖 난동과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참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피신하여 괴물 같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놓지 않았다. 결국 후에는 알콜 중독자인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를 다닐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늘 아버지의 폭력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도 평안을 되찾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저는 신앙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신앙 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괴물 같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사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 주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면서 나와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렇듯이 한 사람의 삶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삶으로의 재구성 가능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겠지만, 긍정적 형태의 ‘극복’을 통해 삶의 재구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다중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던 한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삶의 재구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심층면접의 내용을 텍스트화한 자료를 사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폭력은 참여자의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자아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참여자는 청소년기의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 타인으로써

터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왔다. 즉 연구 참여자는 ‘타자화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셋째, 참여자는 아버지의 폭력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긍정적인 삶으로의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기존의 연구들은,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도식의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기존 연구와 상이한 점이다. 청소년기의 가정폭력 경험의 외상으로 인해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체성이 훼손된 결과를 가져온 점은 기존의 연구와 같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기독교신앙’이라는 삶의 매개체를 통하여 폭력의 부정적 요소를 상담사가 될 정도의 긍정적인 삶으로의 삶의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폭력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도식화된 부정적 틀을 벗어나 가족 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을 지원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이 1명이라는 극히 적은 단위의 표본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한 점이다. 물론 4차례, 심층면접을 통하여지만, 사회적인 이슈까지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둘째,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된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의 충돌, 가족관계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 차이 등 사회적측면에서의 사건 등 이러한 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렇하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의 한 사람의 생애사적 연구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 존재론적 입장에서 연구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의 틀을 벗어나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 셋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극복’을 통하여 긍정적인 삶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References

- [1] 김정명(2021) 아마르티아 센의 『정체성과 폭력』 시각으로 본 아프리카 난민 문제 1090호>
- [2] 김병득(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 연구*, 15(3), 1-28.
- [3] 박정은. (2018).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지현·최지영. (2016).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내재/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91-91.
- [5] 서진선. (2017).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오은영(2023) 나의 문제는 유년기에서 비롯? 이 말이 놓친 것, 치유 문화는 정말 치유적일까?
- [7] 윤건수·김순희(2013). 2013 봄; 공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 1-23.
- [8] 이병도·박현민·서우승·이창배. (2019).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307-344.
- [9] 이승주·정병수. (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250.
- [10] 전신현. (2019). “학교적응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초, 중, 고 세 학령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3-97.
- [11] 주재홍·김영천(2012). 질적 연구의 지적 전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그 방법적 이슈들. *교육인류학연구*, 15(3), 29-61.
- [12] 홍세은·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13] 배영미.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체험된 폭력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3-33.
- [14] Honneth, A.(2009). 정의의 타자 (문성훈·이현재·장은주·하주영 역). 나남.
- [15] Payne, M.(2005). *Modern social work theory*. Lyceum.
- [16] Yarhouse. M. A.(2008). Narrative sexual identity spiritual and/ therap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3), 196-210.

송 정 애(Song, Jeong-Aei)



- 2020년 3월~2022년 8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3년 3월~2015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2014년 7월~2022년 6월: 서울시 관악구의원
- 관심분야: 복지경영, 상담심리, 문화예술
- E-Mail: mara1003@naver.com

박 유 범(Park, Yoo-Beum)



- 2014년 2월~현재: (사)이레앙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상임이사/전임교수
- 2020년 3월~현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2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2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관심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상담, 학교폭력
- E-Mail: ybpark09@naver.com